

<2022년 2월 7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개발한 후와 개발하기 전은 천국과 지옥 같은 차이다.
2. 개발하고도 쓰지 않으면, 개발하지 않았을 때와 같다.
3. 자기 책임을 다했을 때와 다하지 않았을 때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다.
4. 자기 책임을 다하고도 잊거나 쓰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5. 자기 것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는 낮과 밤 같은 차이다.
6. 자기 것이 됐을지라도 생각에서 잊으면, 자기 것이 안 됐을 때와 같다.
7. 구원받고 휴거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가 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모든 것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자’와 ‘가난해서 배고프고 아프고 갖은 고통을 받고 사는 자’ 같은 차이다.
8. 과거에 얻지 못하고 갖은 고생을 하던 때를 생각하면서 현재 얻고 누리며 사는 때를 항상 잊지 말고, 너를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9. 모든 것을 개발하여 새롭게 되고 얻고 누리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함께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실상은

지옥의 삶이다. 정녕 그러하니라.

10. 하나님이 얻게 하신 것은 전능하신 삼위와 주와 함께 사랑하면서 살 때 필요한 것들이다. 이를 깨닫고 매일 기뻐 대화하며, 그 뜻대로 같이 쓰라고 주셨다.
11. 매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 대해 새로운 것을 깨닫고 행하는 자는 생각이 살아있는 자요, 전능하신 삼위와 사랑하며 교통하는 자니라.
12. 전능하신 삼위와 주를 잊으면 영원한 세계도 잊고 살게 되고, 지금 사는 육의 세계에서도 영원성을 잊고 살게 된다. 이를 잊지 않고 늘 생각과 몸으로 누리고 사는 삶이 축복의 삶이니라.